영화 '말모이'의 감동과 여운

이홍재의 세상만사

주필

"꽃아 꽃아 아들 꽃아 오월의 꽃아/…/ 망월동에 너의 넋이 쓰러졌어도/ 꽃아 꽃아 아들 꽃아 다시 피어나라." '노래하는 스님'으로 유명했던 정세현(법명: 범능)이 생전에 불렀던 '꽃아 꽃아'란 노래다. 정세현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겪은 이후 스님이 되기 전까지 한때 운동권 가요 작곡자이자 민중가수로 활동했다. 이 노래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언론 노조 활동을 하던 1980년대 말이었다. 그때 조합원들은 놀이 패를 통해 꽹과리나 장구 치는 법을 배웠다. 또한 민중가요를 함께 부르며 전의(戰意)를 다지기도 했다. 한데 당시 노조의 책임을 맡고 있던 나 또한 이 노래를 어깨너머로 배웠던 것이다.

"꼬다 꼬다 아들 꼬다 오월의 꼬다" 구슬픈 국악풍의 이 노래를 우리는 늘 이렇게 불렀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다. 어느 날 혼자서 노래를 흥얼거리다 갑자기 어떤 의문이 드는 것이었다. "꼬차 꼬차 아들 꼬차 오월의 꼬차"로 소리 내어 불러야 하는 것은 아닐까? 혹시 '꼬다'는 '꼬차'의 잘못된 발음 아닐까? '앞 음절의 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 따위에 결합될 경우, 뒤에 오는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는 표준 발음 규정대로라면 아, '꼬차'로 해야 맞겠구나.

그렇다면 서울 사람들은 과연 이를 어떻게 발음하고 있는 걸까? 그 오랜 궁금증은 최근에야 풀렸다. 수도권 주민 1200명을 대상으로 '꽃아'란 말이 호격조사 '아'와 결합될 때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조사한 결과(국립국어원 '새국어 소식', 2005년 5월)를 뒤늦게 접하게 된 것이다. 놀랍게도 '꼬사'로 발음하는 이들이 59%로 가장 많았다. '꼬차'로 발음하는 이들은 25%로 그 뒤를 이었고, 10% 정도는 전라도 사람들처럼 '꼬다'로 발음한다고 했다.

여기서 잠깐, '표준 발음법'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그건 다름 아니라 '한 나라에서 공용어로 쓰는 언어의 말소리를 규정한 규범'이다. 표준 발음이 필요한 이유 역시 표준어가 필요한 이유와 다르지 않다. 출신 지역이나 나이에 따라 사람들은 같은 말도 조금씩 다르게 발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표준어나 표준 발음이나 모두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사회적인 약속이라 할 수 있다. 우리말 자모에 각기 붙여진 이름도 마찬가지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한데 기역은 왜 '기윽'이라 하지 않았을까? 디귿은 왜 '디읃'이 아니며 시옷은 왜 '시읏'이 아닐까. 이는 1527년에 간행된 최세진의 훈몽자회(訓蒙字會)에서 비롯된다.

'기역'은 왜 '기윽'이 아닐까

훈몽자회는 자모의 명칭을 한자의 음(音:소리)과 훈(訓:뜻)을 이용하여 표기했다. 기역(其役), 니은(尼隱), 디귿(池末), 리을(梨乙), 미음(眉音), 비읍(非邑), 시옷(時衣), 이응(異凝) 등으로. 신라 시대 이두(吏讀)와 같은 원리의 표기다. 한데 '윽'이라고 표기할 마땅한 한자의 음이 없으니 그와 비슷한 '역'(役)을 취했고, '읃'이 없으니 그와 비슷한 '말'(末, 끝)의 뜻을 빌려 이름을 삼았다. 또한 '읏'이 없으니 그와 비슷한 '의'(衣, 옷)의 뜻을 빌린 것이다.

물론 최세진 자신은 '기윽' '디읃' '시읏'이라고 읽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후세 사람들은 훈몽자회에 한자로 적힌 자모의 명칭을 그대로 한글로 옮길 수밖에 없었고, 그래 '기역' '디귿' '시옷'으로 굳어진 것이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우리와는 달리 '기윽' '디읃' '시읏'으로 읽는다. 물론 이건 작은 차이에 불과하지만, 오랜 남북 분단의 세월은 우리말과 글의 이질화를 심화시켰다.

지난해 평창올림픽 개막식 참가차 온 북한 대표단의 청와대 오찬에서 남북 언어 차이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남측의 임종석이 "오징어와 낙지는 남북한이 정반대더라"라고 하자 북측의 김여정이 "그것부터 통일해야겠다"고 말해 웃음이 터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남북 언어에 대한 통일 노력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니다.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이 사업은 1989년 평양을 방문한 문익환 목사가 '통일국어대사전' 공동 편찬을 제안했고, 김일성 주석이 이에 동의해 처음 씨앗이 뿌려졌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아래서 부침을 거듭하다 2016년 중단되고 말았다. 그리고 남북 화해의 훈풍이 불던 지난해 비로소 남북한 관계자들이 만나 겨레말큰사전 편찬 회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사전을 만드는 작업은 참으로 지난한 작업이다. 평상시에도 그러하려니와 우리말 말살 작업이 가혹하게 진행되던 일제 강점기엔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했으니까. 우리말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분이 한힌샘 주시경(1876~1914) 선생이다. 선생은 나라의 혼을 살리고자 1911년 최초의 우리말 사전 '말모이' 편찬을 시작했으나 이른 죽음으로 끝을 보지 못했다.

목숨 걸고 지켰던 우리말

'말모이'란 '낱말들의 모음'이란 뜻으로 사전을 가리키는 순수한 우리말이다. 선생의 뜻을 이어받은 조선어학회는 1929년 '조선어사전' 편찬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1942년 일제의 탄압으로 회원 수십 명이 고초를 겪고 이윤재·한징은 감옥에서 숨을 거두기까지 했다.

당시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복역한 바 있는 외솔 최현배(1894~1970) 선생은 언어 민족주의에 입각해 맞춤법을 통일하고 표준말을 제정하는 데 모든 것을 바쳤다. 선생은 '우리 말본' 저술에 심혈을 기울이기도 했는데, 강의를 나갈 때마다 부인에게 '불이 나면 이 원고부터 옮기라'고 했다고 한다. 나중엔 그것조차 안심이 되지 않았던지 아예 마당에 독을 묻고 그 속에 원고를 넣어 둔 것으로 전해진다. 이극로, 최현배, 이희승, 정인승, 정태진…. 우리말을 지키고자 했던 수많은 선각자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는 마치 공기처럼 고마운 줄도 모른 채 우리말을 사용하고 있다. 선인들의 이런 희생의 역사가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는 일본어를 국어로 쓰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최근 '말모이'란 제목의 영화를 보면서, 오랜만에 많이 웃고 많이 울었다. 영화는 사전 편찬 사업에 얽힌 고난의 행로 가운데 일제 탄압이 가장 심했던 시기를 허구적 서사에 의탁하여 때로는 감동적으로 때로는 익살스럽게 그려 내고 있다. 우리말을 살리기 위한 애국자들의 목숨을 건 투쟁과 노력을 한 편의 영화로 만날 수 있어 행복했다. 그리고 한국 상업 영화계 풍토에서는 쉽사리 손대기 어려웠을 법한데, 그럼에도 이런 좋은 영화를 만들어 준 감독에게 고마웠다. "말과 글을 잃으면 민족도 멸망한다." 주시경 선생의 말이다.

트럼프, 오늘 북미정상회담 개최 공식 발표할 듯

WP "北 김영철 만난 뒤…3~4월 베트남 다낭 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동부시간으로 이르면 18일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공식 발표할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미국과 아시아 외교관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하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이날 백악관에서 만난 뒤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발표할 수 있다고 전했다.

WP는 또 만약 회담 개최 사실이 발표된다면, 회담 시기와 장소는 오는 3~4월 베트남 다낭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김 부위원장은 북미 고위급회담을 위해 17일 워싱턴DC를 방문해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WP는 김 부위원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18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1차적으로 김 부위원장의 방미는 지난해 말 전격 취소됐던 폼페이오 장관과의 고위급회담을 다시 열기 위한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 얘기하는 것이 북한의 원래 목표라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6월 제1차 북미정상회담 직전, 역시 김 부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직접 백악관을 찾았던 이례적인 외교 행보를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WP는 전했다.

WP에 따르면 17일 밤 워싱턴에 도착하는 김 부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장관 외에 지나 해스펠 중앙정보국(CIA)국장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북한 통일전선부와 CIA가 주도적으로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 조율을 진행해왔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 부위원장의 이번 방미에서 북미 양측 논의에 진전이 있다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간 첫 실무협상도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미 관리들은 기대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북미 실무협상 채널은 지난해 8월 비건 특별대표가 임명된 뒤 지금까지 한번도 가동되지 못한 상태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제 및 로지스틱스(실행계획) 조율을 위해 조만간 본격적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연합뉴스

전남 외국인 보유 토지 3만3천㎡ 줄어

전년비 5.2% 감소

전남도는 2018년 하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전남지역 토지면적이 370만㎡로, 전년보다 5.2%(3만3000㎡) 줄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체 전남 면적(1만2335㎢)의 0.3% 수준이다. 금액으로는 공시지가 기준 2조2256억 원으로 전년보다 0.48%(108억 원) 줄어든 규모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전년보다 2.1% 줄어든 157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 면적의 42.61%를 차지했다. 이어 유럽 17만7000㎡(4.78%), 일본 14만3000㎡(3.86%), 중국 3만2000㎡(0.86%) 순이며, 나머지 국가가 47.88%를 보유하고 있다.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이 약 4697억원으로 전체의 20.82%이고, 유럽 7.88%(1778억원), 일본 3.6%(813억원), 중국 1.72%(388억원) 순이었다.

취득 원인별로는 공장 용지 201만4000㎡, 주택용지 7만4000㎡, 상업용지 2만4000㎡, 레저용지 1000㎡, 기타 158만9000㎡로 파악됐다.

유영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외국인 실거주와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다 편리하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알립니다

제63회 신문의 날 표어 공모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는 제63회 신문의 날을 맞아 표어를 공모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공모부문 : 제63회 신문의 날 표어
▲공모기간 : 2019년 2월 28일(목)까지
▲공모방법 : 한국신문협회 홈페이지(www.presskorea.or.kr)에서 공모신청서 작성
▲출품규격 및 출품 작수 : 20자 이내, 개인별 2점 이내
▲시상내역
-대상 1명 (상금 100만원과 상패)
-우수상 2명 (상금 50만원과 상패)
▲문의처 : 02)733-2251~2, 한국신문협회
※ 공모 소재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신문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光州日報

단독 섬·전국 임야
바로삽니다.010-6834-7400
※전남,북지역/지분환영,1억원 이하※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무안 현경면 시골주택 대지 691㎡ 주택 63㎡ 3500만원
• 화순군 동면 서성리 656㎡ 경관 아주좋음 1억1880만원
• 별장 나주시 다시면 대지 450㎡ 시설·환경 좋은 2층 97㎡ 3억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좋음 1130㎡ 1억2천
•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1728㎡ 전원주택·주말농장 적합 1억7천
• 곡성 삼기면 청계리 681㎡ 광주서 30분내 4600만원
투자·매도·교환
• 담양 금성면 추월산·순창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5천
• 서구 쌍촌동 운천저수지 부근 2층 주택 땅 105㎡ 새주택 118㎡ 2억6천
• 별장형주택 남평읍 수원리 대지 403㎡ 주택 143㎡ 2억6천
• 장성 남면 덕성리 주거지 588㎡ 광주인근 교통좋음 1억8500
• 강진군 드림팜핑관광농원 땅 10194㎡ 시설완비 6억5천
•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4861㎡ 창고·가든·매장 등 적합 6억
•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대지 641㎡ 사찰·빌라·다세대 적합 1억5백
• 무안 해제면 소재지 상업지 1036㎡ 은행 2억4천 매도 1억 교환가능
• 무안 청계 목포대학부근 주거지 답 4413㎡ 은행 2억4천 매도 7천
• 충장로5가 버스도접 상업지 494㎡ 생활주택 사옥적합 7억5천
상가건물
• 화정동 건물 대지 388㎡ 건평 581㎡ 보증금 1억2천 월 700선 수입 13억8천
• 완도읍 정도리 땅 4024㎡ 건평 1203㎡ 연수원 등 적합 10억
• 용봉동 고시텔 대지 357㎡ 건평 830㎡ 은행5억 매도 8억5천 조정가능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버스도 접 토지 155㎡ 건물 4층 263㎡4억천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 농성초부근 2차선접 상가주택 땅 172㎡ 건평 279㎡ 4억5천
특급물건
• 화순 능주면 면소재지 대지 588㎡ 3층건물 431㎡ 은행 1억 매도 1억2500
• 목포시 상동 땅 1683㎡ 건평 1190㎡ 은행 3억8천 노인시설 적합 10억
• 정읍시 신태인읍 1213㎡ 감정 6억4천 다세대 적합 은행 4억3천에 매도함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부동산 매매
●남악 신도시●
지 번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308번지
면 적 12,510.5㎡ (3,785평)
매매가 230억원
용 도 일반상업지역, 대로변접 사거리코너
권장업종 예식장, 관광호텔, 아울렛, 오피스텔, 창고형 마트 등
전남도청 앞 남악신도시의 최고 핵심상권!!
※본물건은 전속중개물건임
(주) 조은날부동산
☎ 010-3111-5087

전망 좋은 오피스텔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73평, 사무실 전용, 코너
■ 20층중 20층, 하천방향, 전체 올수리
■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주차 5대
■ 관리비 저렴, 즉시 입주가
■ 매매 – 4억(일시불 조정가)
■ 임대보장
문의. 010-6834-7400